

# 홍익대의 교수업적평가제 : 영역별·계열별 공정평가를 위한 과제

성 범 용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 연구처장



## 1. 도입 배경 및 추진 과정

**최** 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로 부상하면서 대학가에서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갈등을 겪고 있다. WTO(국제무역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교육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육 대상 인구조차 감소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국내 대학들간의 경쟁이 필연시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마다 특성에 알맞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지 않고는 생존원칙에 입각하여 더 이상 존속하기 힘든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도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95년

5월에 일련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개혁 방안'을 수립하여 대학가의 변혁을 유도하는 한편, 개혁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병행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홍익대학교는 1971년부터 국내 최초로 신문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우수 교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교육용 실험기자재를 확충하는 등 꾸준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연구하며 발전하는 대학'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여 1995학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에서 최우수 그룹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교수업적평가제와 관련하여 1990년대 초부터 전임교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수인력을 비롯하여 교수업적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본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문의 성취 결과와 영역이 다양한 교수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 또한 교수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일도 그렇게 용이한 과제는 아니다.

교육에 전념하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연구활동에 탁월한 교수가 있고 행정교수로서의 높은 역량을 갖춘 교수가 있기 때문에 교수 모두에게 교육, 연구, 봉사활동 전 분야에 걸쳐 탁월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수업적평가 시행에 대한 성패의 관건은 교수의 다양한 자질과 전공 분야를 감안하여 교수 대부분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합의된 규정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대학은 1994년 4월에 연구처 산하에 '교수평가제 규정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 연구, 봉사 영역에 대한 평가 배점을 근간으로 하는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전체 교수와의 수차의 논의와 토론, 공청회를 거쳐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을 거듭하여 현재의 '홍익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및 시행세칙'을 확정하고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 2. 제도의 운용 현황

교수업적평가제를 시행하는 기본 정신은 교수들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능력을 더욱 개발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고, 교수들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의 질을 높

임으로써 우수 학생들을 배출함은 물론, 교수 스스로도 학교와 사회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교수업적평가제도는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닌 교육, 연구, 봉사 활동 전반에 걸쳐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든 교수에게 동일한 척도로 무차별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계열별, 단과대학별, 학부(과)별 내지는 전공별로 차이를 두고 그에 알맞은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에서도 평가위원들의 자의성이 개재될 소지가 있는 정성평가보다는 가능한 한 정량평가를 행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홍익대에서는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1조에 본교 전임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 활동에 걸친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개인적 연구와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학문적·예술적 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가 대상 영역을 크게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으로 분류하고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미술·디자인계열 등 5개군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계열별에 따라 평가 기준과 적용 배점을 달리하고 있다.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정 조직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본교에서는 단과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 대학교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재심위원회를 두고 주무부서로 연구처가 업무를 관장하여 진행하되, 평가 결과는 교무 및 인사 담당 주무 부서인 교무처로 이관된다. 물론 평가 결과는 대의

비로 하며, 해당 교수와 업무 관련자 이외에는 공표되지 않는 비밀 유지 원칙을 지키고 있다.

단과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소속 교수들 가운데 전공 및 직급을 고려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하여 총장에게 보고하며, 위원회에서 교수업적에 대한 제1차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대학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회부한다.

대학교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학사 담당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연구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 당연직과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연구처 부처장이 담당한다. 대학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권한으로는 ① 단과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② 단과대학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③ 평가 대상 교수에게 자료 제출과 보완의 요청, ④ 교수업적평가 규정의 개정 제기 및 유권해석, ⑤ 기타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 등이며 의결 방식은 평가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심의하기 위해 재심위원회를 둬으로써 잘못된 평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재심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단과대학의 교수업적평가위원회나 대학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교수 가운데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교수 5인과, 이의를 제기한 교수와는 소속이 다른 대학의 정교수 중 유사 전공 교수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재심하되, 의결 방식은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재심에 대한 심의 일정은 평가 결과

에 대해 개인별 통보 후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재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의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과대학 및 대학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임기는 2년인 데 비해 재심위원회는 재심 의결 후 자동 해체된다.

한편, 영역별 평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활동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연구영역은 교수 개인의 능력과 계열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점이 있을 수 없으나, 교수 전체의 연간 평균 연구실적 기준으로 볼 때 교육영역의 가중치를 100으로 볼 때 교육, 연구, 봉사활동 영역에 대한 배점 구조는 100 : 130 : 6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영역별 평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 교육영역

교육영역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강의, 실습 및 실기)과 교내·외를 통한 학생지도 등 제반 교육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가항목을 강의평가와 학생지도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에 의한 강의평가의 경우에는 책임수 내의 전 과목에 대해 강의평가를 시행한 경우를 만점으로 하여 1과목 또는 2과목 시행 여부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강의평가를 위한 설문지는 일반형(인문, 사회, 사범, 이학·공과 계열), 실험실습형(공학계열 중 실험이 포함된 강좌), 미술·디자인계열형 등으로 양식을 구분하고 강의 내용 전반에 걸쳐 20~22개 항목에 대해 설문하고 있다. 그 중 핵심적인 설문 내용만을 보면 강의 첫 시간에 배포된 수업계획서(syllabus)대로 강의가 진행되었는지의

여부, 교수의 강의 내용 및 구성의 적절성, 강의의 전개 방식, 면담시간(office hours)의 이행 여부, 과제물의 내용과 분량, 시험 문제의 난이도, 성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의 전달 및 평가의 공정성 등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지도활동에 대한 평가는 학생의 교내·외 활동지도, 학업지도, 진로상담, 대학원생 지도에 따라 A, B, C 그룹으로 차등화하여 배점을 달리하고 있다. 교육영역에서의 연간 인정 총점은 강의평가 5점, 학생지도활동 5점으로 총 10점이다.

## 2) 연구영역

연구영역에 대한 평가는 해당 전공 학문의 지성적·과학적 활동과 연관된 모든 형태의 연구 및 창작활동 결과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학술상 또는 실용화된 특허 및 국제특허에 대해서도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크게 논문, 저술, 수상, 기타 항목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양적 평가와 더불어 질적 평가가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게재 논문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 학술지에 게재되었는가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는 학술지 평가인정제에 기초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미술·디자인계열에는 연구 및 창작활동 부문에 전시·출품 분야를 추가하여 국내·외 개인전 개최, 국제전 출품, 산업디자인전 추천, 초대 출품, 공인 민전 초대 출품, 국내·외 단체전 출품, 디자인 설계 작품 등으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달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한편, 논문 부문에서는 국제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박사학위논문 그리고 국외 개인전 개최(미술·디자인계열)에 가

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평가에서 인정하는 국제 전문 학술지로는 AHCI, SSCI, SCI에 수록된 학술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에서 인정하는 국내 전문 학술지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학술지를 의미하는데 ① 심사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② 편집진의 구성 분포가 전국적이어야 하며, ③ 투고자 및 독자층의 구성 분포가 전국적이고, ④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전문 학술지여야 한다. 또한 대학학술지(논총, 연구소 논문집), 기념논문집, 박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배점을 달리하고 있다.

저술 부문에 대한 평가로는 국내·외 전문 학술서적 출판에 제일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전문서적 번역, 교열판 및 주석판, 자료집, 편저, 전공교재 순으로 차등화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논문 및 저술에 대해서는 단독 연구인가 또는 공동 연구인가에 따라 적용 환산율을 달리하고 있다. 단독 연구인 경우에는 100%, 2인 공동 연구에 70%, 3인 공동 연구는 50% 그리고 4인 이상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30%의 환산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한편, 수상 부문에서는 연구업적에 의한 학술상 및 논문상 수상(미술·디자인계열은 미술대전, 공예대전, 산업디자인전 대상 및 특선 이상 수상, 국제전 대상, 예술상 등)에 대해 평가하고, 기타 부문에서는 실용화된 특허 및 국제특허, 실용화된 디자인(미술계열) 등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고 다수의 우수 논문을 발표 또는 게재할 수 있도록 학기중이라도 국제학술대회 또는

미술·디자인의 국제 출품을 위한 출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최초 7년이 경과하면 1년의 연구년이 보장되며, 최초의 연구년을 가진 이후부터는 3년 반 만에도 6개월의 연구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전국 규모 또는 학부(과) 단위의 학회 유치 그리고 산·학·연 공동세미나 개최 등에 대해 교내 연구비 지원을 하고 있다. 연구처 산하의 연구소별로도 내부 전임교수 또는 외부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연구 주제 발표와 토론회 개최는 물론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을 통해 학문교류 및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행정 조교 이외에 교비 지원의 강의조교(T/A) 및 연구조교(R/A)를 두어 해당 교수에게 배치하여 전임교수의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3) 봉사영역

교수의 대내·외 봉사활동은 교수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교내 또는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홍익대의 봉사영역에 대한 평가는 학회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교내 보직 활동, 그리고 기타 대학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학회 활동 분야에서는 국가에 등록된 학회의 회장단, 임원, 위원회 위원장, 학회지 및 논문집의 편집위원 등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분야에서는 국가기관(부처)

심의 및 자문위원, 정부투자기관 및 청급 국가기관 위원, 시·군·구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포함된다. 교내 보직을 통한 봉사활동은 교무위원급에 최고의 배점을 부여하고 대학원 교학부장, 각 부처장 및 부속기관장, 대학 부설 연구소장, 부장, 학과장 및 전문위원, 연 4회 이상 활동이 있는 교내위원회 위원 등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봉사활동으로 인해 교육 및 연구활동을 소홀히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봉사활동의 연간 인정 총점을 6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3. 발전 방향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홍익대는 교수업적평가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극소화하고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는 평가를 통해 교수의 업적을 종합 관리하고, 업적 우수 교수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하는 반면 업적 부진 교수에게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노력하는 교수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출발되었다. 그러나 전체 교수와의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제정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95년 3월부터 시행되어 그 역사가 길지 않기에 규정을 보완·수정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는 교육영역에서 강의평가에 의한 배점 기준을 수정하여 강의의 담당 과목 및 시간수, 석·박사과정의 지도 및 배출 실적, 강의 개선을 위한 교육매체 개발 등을 감안하여 보다 세분화된 분류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는 일이 향후 보완될 과제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학생지도활동에 대한 평가

에서도 소속 학부(과)생이 없는 교양 관련 교수들에 대한 평가에서 소속 학부(과)생이 있는 교수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해당 단과대학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더욱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과제라고 하겠다.

둘째는 연구분야에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유명 논문의 인용횟수 등을 감안한 영향 평가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연구실적 중 전공교재에 대한 포괄 범위가 불분명한데, 순수 대학 전공교재가 있는가 하면 전공관련 교양교재가 있고 사범계열의 중·고등학교 교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학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평가하고 있으나, 규정에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셋째는 봉사활동 영역에서 학회 회장단이나 국가기관 심의 및 자문위원회에 대한 배점 기준이 교무위원급 교내 보직과 동일한 결과, 교내 보직을 기피하는 대신 대외활동에

더욱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내 봉사활동에 대한 가중치를 다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향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아 있다. 또한 가능하다면 교육전담 교수, 연구전담 교수, 행정전담 교수제를 도입하여 평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끝으로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활용면에서 현재 우수 업적 교수를 선정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의 누적에 따라 승진 심사, 재임용 심사, 연구년 배정 등에도 계속 적용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경과되면서 본 제도가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성범용/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과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지내고 현재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연구처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국제금융의 이론과 정책』 등이 있고, "Recursive Utility and Optimal Capital Accumulation. I. Existence", "환율동태모형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